

주 일 낮 예배 |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4:24)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인도 / 김동오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 경배찬송 **다함께**

35. 큰 영화로신 주
비 준비하시니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기도 | 전정옥집사 II 박병기장로

성경봉독 **인도자**

누가복음 15:20-24 (11-24)

찬양 I 탕자의 고백 교사중창단

II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호산나찬양대

설교 김동오목사

"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도 **다함께**

봉헌 **다함께**

3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기도 **설교자**

■ 결단의찬양 **다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 축도 **설교자**

- 경건한 마음의 표시로 일어섭니다. ■ 다음 기도 / I. 송수진집사
- 헌금은 예배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II. 신재희장로
- 4월 20일 / 행10:34-43, 시118:1-2, 고전15:19-26, 눅20:1-18

주일 오후 찬양예배

오늘 주일오후예배는

해피데이전도축제 초청주일 관계로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대체합니다

수요저녁예배

오후 7:15 인도 / 김동오목사

경배와찬양 (인도)코람데오찬양단

기도 강철규권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18:12-28 **인도자**

설교 "행36,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김동오목사

기도 **다함께**

찬송 384.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함께**

축도 **설교자**

□ 다음 기도 / 강은숙권사

새벽기도회

새벽 5:00 인도 / 김동오목사

· 월	14일	마가복음 12:1-12	버려진 돌에서 구원의 반석으로
· 화	15일	마가복음 14:12-26	사랑의 새 언약으로 초대하는 만찬
· 수	16일	마가복음 14:32-42	순종의 기도로 마주하는 십자가 고난
· 목	17일	마가복음 15:1-15	진리와 정의를 외면한 불의한 판결
· 금	18일	마가복음 15:25-38	고난의 십자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
· 토	19일	마가복음 15:39-47	진실한 증언과 담대한 믿음
· 일	20일	마가복음 16:1-11	빈 무덤의 기적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 새벽기도회 묵상 말씀은 Q.T 교재 <생명의 삶>(두란노) 해당 날짜 본문과 같습니다.

설교 요약

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회적 특징은 '공정'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여 출발점에서 역울함이 없게 하자는 겁니다. 봉건사회에 비하면 굉장히 발전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는 공정한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렇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표면상의 공정과 실질적인 공정의 격차는 느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실, '나 중심의 공정'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공정에서 출발한 이 사회의 더 큰 문제는 실수했을 때 다시 도전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패배한 사람은 패배의 과정에서 원인이 있었을테니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실수나 실패를 용납하고 다시 기회를 주면 공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욕망으로 선택하여 실패했을 경우 그 실패의 짐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세상은 패전부활전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말씀을 우리는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탕자'보다 '되찾은 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24,32). 어느 것이 맞을까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을 주장하는 형(큰 아들) 관점에서 보면 그 둘째 아들은 '탕자'일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하나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은 '되찾은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맞을까요? 탕자? 되찾은 아들?

둘째 아들, 탕자 맞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까?(12)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은 투자하다 실패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탕진한 못난 놈입니다(13,14). 이제는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지경에 이르자(15,16), 그때 '제 정신이 들었습니다'(17). 제 정신이 드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아버지(하나님)가 떠오르는 자리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20). 실패해서, 굶주려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둘째 아들의 심경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면 아버지 벌 면목도 없고,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내쫓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안했을까요?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하나님)가 계속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자세히 봅시다. 누가 달려갑니까? 누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아버지 입니까? 또 놀라운 사실은 아들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21)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하십니다. 그저, '좋은 옷 입히고, 손에 반지 끼워주고, 신을 신겨라'(23), '소고기 파티'하자(24) 그러십니다.

아버지(하나님)은 실패의 원인과, 책임도 묻지 않으십니다. 공정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겠지만(30)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탕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되찾은 아들'로 여기십니다(24,32). 인생에서 실수나 실패를 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내 뜻대로 됩니까? 아차,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 해피데이축제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4월 20일(주일)에도 복음설교를 합니다. 한 번 더 오셔서 들어보십시오.
 - 오늘 주일오후예배는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대체합니다.
- 직분자교육 4 : 4월 13일(주일) 오후 1:30, 담임목사실(2층)
 - 참가대상: 임직후보자 - 주제: 미래사회 미래성도(조경한목사)
- 봄 심방: 4월 15일(화) 33구역
- 성목요일 저녁기도회: 4월 17일(목) 오후 8시, 대예배실(3층)
- 부활주일 : 4월 20일(주일), 성찬예식
 - 부활절헌금 중 일부는 경남북 산불 피해 및 미안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금(교단 주관)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부활절 기관별 찬양축제 : 4월 20일(주일) 오후1:30
- 강단화분 봉헌 : 성종완 권아름 김동오 설수정 조경한 정세영 한영숙
- 공동식사 쌀 : 함용만
- 커피대접 : 김남숙

▣ 성경 및 헌금 계좌 안내

•태장성결교회 공식 성경은 [새번역성경]입니다.

•헌금 이체 계좌번호

십일조,감사,건축 / 농협 213-01-166145, 태장성결교회
 선교헌금 / 새마을금고 4315-09-005272-5, 태장성결교회(선교부)
 나눔헌금 / 새마을금고 9002-1353-6796-9, 태장성결교회(나눔위)

▣ 목회계획

4.13-19	4.20-26	4.27-5.3	5.4-5.10
	20. 어린이해피데이 초청 26. 찬양단 세미나	27. 7여전 헌신예배 양문교회 헌당 및 임직식	4. 가족주일 2남전 헌신예배 10. 귀래, 담임취임

▣ 봉사위원

구분	4.13	4.20	4.27	5.4	
방송	1부	신예슬	조경한	신예지	강호길
	2부	임윤구	조승현	임윤구	조승현
	오후	김현영	박태근	조승현	임윤구
차량 운행	1호	강대봉	강병린	김문배	이철성
	2호	신재희	김명운	수요	교역자
주방	여전연합	-	24,32,44구역	33,41,42구역	
오후 돌봄	-	-	김종순 김춘자	최명숙 유혜순	
청소(화장실)	교회대청소	2남전	3여전	3남전	
봉헌	1부: 신동희	2부: 유혜순			

▣ 우리 교회는!

1.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성숙한 신앙공동체를 꿈꾸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배우기를 힘씁니다.
2.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꿈꾸며, 이를 위해 교회 프로그램 전반에서 가정을 배려합니다.
3. 지역사회와 더불어 숨쉬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일낮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00
2부	오전 11:00	성목요일기도회	목 오후 8:00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 2:00	포에버예배	목 오후 1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7:15	구역장교육	수 오후 8:20
주일유아예배	오전 11:00	전도모임	토 오전 10:50
주일어린이예배	오전 10:50	구역모임	구역별 별도시간
주일청소년예배	오전 11:00	주말교회청소	기관별 별도시간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 태장성결교회 가는 길



시내버스 /
3, 4, 6, 7, 41, 42번
정암아파트 앞 하차

교회 버스 /
주일, 수, 새벽예배
차량 운행시간표 참조

▣ 섬기는 분들

담임 목사: 김동오

명예 목사: 채수환

부담임 목사: 조경한

청소년간사: 강호길

선교사: 황느헤미야 임에스터 (T국)

박에덴 베들레헴 (L국)

최용락 이민숙 (K국)

박종민 이인덕 (T국)

지영환 김희수 (V국)

최경민 김은진 (G국)

협력교회: 가평더사랑 귀운 서원주

영동 주님의 주사랑

주비전스토리 한우리

시무장로: 김인택 신재희 김한수

원로장로: 박병기

명예장로: 황호윤 김성제

찬양지휘: 고재석

반주: 원신희 장영희 변찬미

신지혜 박예강 이하민

김건희

협력사역: 강원코칭넷 강원칼넷 DPA

서울신학대학교 아이행복마을

원주북원노인종합복지관

원주소망주기복지센터

2025년 4월 13일
(통권 제 54권 15호)
교회설립 1973.5.20.
해피데이초청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어

괜찮아

한 강

태어나 두 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 꼬박 세 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 버릴까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 집 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 문득 말해 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서른이 넘어서야 / 그렇게 알았다
 내 안의 당신이 흐느낄 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 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26318 원주시 흥양로102번길 4 (태장동)

☎ 033-742-6762, 070-5168-1770 (담목)

태장성결교회

http://taejang.org